

# 예수의 핏자국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름없는 전도자 지음



예수님의 핏자국을 전하러 결심한 날, 죄악된 미국 땅을 바라 보고 계신 하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분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GPS 좌표: 37° 18'58.8"N 121° 57'34.6"W)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10).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3).

수십 년간 한 분 한 분께 예수님을 전하며, 제가 직접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체험의 한 가지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 흘리신 핏자국을 따라가다가 그 핏자국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책이 더 필요하신 분은 AOJesus.org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저의 사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예수의 핏자국

왜 예수님을 믿는가?

## 예수의 핏자국

발행 | 2020년 12월 7일

저자 | 이름없는 전도자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372-2636-4

www.bookk.co.kr

© 이름없는 전도자 2020

출판 과정에서 법적인 저작권은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피흘리신 십자가 구원에 감히 나의 권리 (copyright)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며, 자격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마음대로 복사하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으며, 그렇게 되어 예수님의 구원이 더 넓게 퍼져 나간다면 포도주를 퍼나른 종에 불과한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가복음 1:37]



# 머리말

1999년 세상의 죄악 속에 파묻혀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어느 작은 골방에서 드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를 씻어주셨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주 작은 고난을 당하고는 마음이 낙심되어 의자에 엎드려져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을 수 년간 데리고 다니시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에게는 다메섹 길위에 나타나셔서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나에게도 예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였고,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불공평하신 예수님이라는 아주 철없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얼굴을 보여 주셨습니다. 멀리서 나에게 점점 다가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의 가시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10센티미터 정도는 될 법한 길고 아주 무서운 가시였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어느 정도는 뚫고 들어가서 짓이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마치 붉은 색 페인트 통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이 머리 전체에 흘러 내리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 흐르는 피 사이로 겨우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아요? 온 인류가, 아니 바로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멀리 보이셨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환상을 보았으니 앞으로 유명해지겠지?”.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 고난은 저의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씻어 하얗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타고난 교만은 세상에 오셔서 피흘리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산산 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뻗속까지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날까지 인생의 굽이 굽이에서 말씀주시고 인도하심에, 보답으로 예수님께 드릴만한 깨끗한 것이 없어 이 책에 제 이름을 적어놓지 않는 것으로 돌려드리려 합니다.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포도주를 퍼나른 종에 불과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직 예수님 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지난 20여년간 복음을 전하며 제가 목격했던, 성령님이 친히 임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증거하시는 역사가 이 책을 읽는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설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지 못합니다. 한 두살 먹은 아기의 마음도 돌려놓을 수 없고, 심지어 내 책상위에 기어가는 작은 개미 한마리도, (놀러서 죽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님이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며, 저는 그것이 참된 성령체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내 마음에 굳게 섰을때 정기적인 예배를 사랑함과,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의 치유와,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능력과, 생활의 성결함과 및 그 이외 모든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굳이 다 알지 못하고 자세하게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6-17]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서 증거된 예수님이 흘리신 핏자국을 따라 그 분을 따를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3]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방울 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들이,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던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의 바로 그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귀하신 보혈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아주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바쁜 삶과는 다르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신다면, 그 읽으시는 말씀속에서 성령님이 조용히 여러분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민수기 11:9]

# 목 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1장). 소망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그 분은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그 분은 우리가 만든 어떤 장소나 건물보다는, 회개하고 예수님 그 분을 영접하는 마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3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상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4장).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자격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5장)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6장).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될 때,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보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7장), 그 거듭남은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음(8장)을 통해서, 이전에는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던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됩니다.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깨어져 낮아진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인도(9장)하시며, 이렇게 함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진정한 회개가 나 대신 벌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머리 카락 만큼의 작은 죄악까지도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고(10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타락하여 동물의 본능으로 살아갈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동물의 밥그릇인 말구유로 오셔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먹으라 하시고(11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았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릴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세상과 죄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12장).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의 굽이 굽이를 동행하실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을 모두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천국 잔치가 열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실(13장) 것입니다.

할렐루야

# 예수님이 하나님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8:25]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KJV 의역]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상담자와 같은 분 (KJV: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이시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한복음 8:56-59]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나 옛날 유대인들이나 같습니다.

그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의 악한 영은 그 설 자리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1-14]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전 약 700년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4]

임마누엘(히브리어로 **אֱמָנוּאֵל**)이라는 단어는, 임마누(**אֱמָנוּ** 우리들과 함께 있다)와 엘(**אֱל** 하나님), 두 개의 뜻이 합쳐진 단어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1-23]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못했다  
점수매기고 우리를 감시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는 우리 죄의 습관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8-10]

죄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있는 우리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10-18]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고, 또한 찾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며, 그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21-28]

예수님의 이름은 그 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기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려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1서 5:20]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랑때문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을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나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5]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6:2-9]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기 직전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히브리어로 יהוה)라는 상형문자 글자의 의미를 하나씩 보면 놀랍게도 “손의 뜻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헤(ה)는 ‘보라’는 뜻이며, 와(ו)는 ‘뜻’이라는 뜻이며, 율(י)은 ‘손’을 의미합니다. 즉 ‘손을 보라, 뜻을 보라’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것이나 기독교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 원래 상형문자 자체의 뜻이며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한 글자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고대 히브리어 상형문자의 뜻(ancient Hebrew character)을 검색해서 그 개별 글자의 의미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손에 박힌 뜻을 보라는 뜻’으로써, 수천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변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변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여호수아 22:26-29]

구약의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며,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겉으로 나타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기적을 구한다기 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대답하십니다.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38-40]

요나는 구약성경 요나서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머물게 되는 사람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 1:6-17]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는 무리의 질문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 속으로 스스로 던져지기를 원하여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빛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렁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1-9]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친히 오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3일간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죽음을 맛보았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낫을 피해 달아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36-42]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한 요나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 받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15]

예수님이 못박히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못박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격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 일치하게 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히심이, 우리 죄인의 몸이 못박히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이, 바로 우리의 승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이김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1-11]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다윗이 수천년전에 예수님과 일치를 하였고, 또한 그 이후로 수천년이 지난 현재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될 때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8-13]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약 천 년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주(주인)라고 부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며,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뿔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시편 110:1-5]

시편 110편에는 다윗과, 성부 하나님(여호와)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다윗이 내 주인이라 부른 그리스도)이 나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분을 통해서 마귀 사단(네 원수)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실 것, 즉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눈처럼 희게 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우리의 제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창세기 22:7-8]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고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의 제물은 바로 우리 위해 대신 벌 받으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1-14]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은 예수님 자신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26]

다윗은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제사지내실 그 분을 “나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의 행위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다윗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나,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22-23]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천년 후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친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마가복음 12:35-37]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천년 이후에 동일한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즐겁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뉘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21-36]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윗은 그 분이 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주’)과  
구원자(‘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봐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상은 시편 110편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 까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6-39]

시편 40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시편 40:7-9]

예수님께서 복음의 “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 믿는 자의 마음에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3-5]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데, 만약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 헌물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로 수십억원  
일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인 그 다이아몬드 자체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속 수십 km아래로 파고 들어가면  
집채만한 다이아몬드들이 그냥 묻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8]



도리어 땅의 소산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2-3]

땅의 소산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직접 세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19-22]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 수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사람들은 믿음을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통한 형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땅의 소산”이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7]

눈에 보이는 땅의 소산이 아닌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양과, 그의 죄 사하심과 구원자되심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서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15-20]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성전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가득찬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1-3]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3-4]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죽음의 굴레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자기 힘으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 치던 인간들을, 그 죄악의 근원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11-15]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심으로, 실상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면, 돈 없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으며,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며 다투는 것도 만약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16-26]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세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회개가 시작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된 후에는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공부한 지식이나 남에게서 들어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가복음 1:37]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오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6-11]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29-35]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6-14]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말구유에 뉘이셨습니다. 말구유는 동물의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분 자신을 영적으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전에  
우리는 동물과 매 한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뉘이심으로 처음부터 그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47-58]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제물로 바쳐 우리 대신 속죄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20]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 배로 갚으셨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찌니라

[이사야 40:2 - 개역한글]

온 인류가 긴 시간동안 지은 죄는 아주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보다 두 배나 갚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지은 죄보다, 그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갚으신 죄의 댓가가 두 배나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25]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없애셨으며,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 살과 피를 동물과도 같은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뻑뻑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22]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떡집(베들레헴)에서 동물의 밥 그릇(말구유)에 누이셨고,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태복음 26:67]

그러나 우리 죄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33-34]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감싸주십니다. 뿌리부터 악한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며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 나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미가 5장]

혹여나 미련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떡집인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근본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과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 우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중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분을 절대자, 혹은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찾고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분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오르신 하나님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사로서의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역사적인 지식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구원자로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자신을 십자가로 드러내셨지만, 그 분이 직접 나에게로 오시는 길은, 내가 회개할 그 때에 열립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1-3]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지 않는다”

그 분들이 살아오면서 지나왔던 여러 고난과 그 결과로 남아 있는 상처들을 살펴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해는 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할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날 도와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검은 찌든한 역청과도 같아서, 거대한 역청의 바다에서는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서 끝나는 지 알 수도 없고, 또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되었고 누가 옳은지도 정확히 구별할 수 없는 끝없는 인과 관계만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선악을 판단하라고 부추겨서 내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려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4-5]

굳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듣느냐?”

부모와 자식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심지어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대화에서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 선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 강요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32]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있던 바로 그 때조차도, 예수님은 욕하는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는데, 이 둘은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죄는 지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회개하는 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리어 명령하는 자였습니다.

달린 형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9-43]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의 기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최악의 바다에서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은 “모든 선한 일을 항상,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부의 선한 일을 잠시 행할 수는 있지만, 모든 선한 일을  
항상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100년을 선하게 살다가 한 번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면 99년 선하게 살아온 것보다, 단 한번의 그릇 살인한 것으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0]

내가 항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나의  
불완전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고통을 주며, 결과적으로  
세상의 큰 최악의 바다에 스스로의 죄를 더하게 되는 죄인의 길을 걸어 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5-7]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함과 또 그 죄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던 것 두 가지 모두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사야 52:1-2]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악의 바다에서 벗어나야 하고,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목의 죄악의  
사슬은 스스로 회개함으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1-4]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항상)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악으로 별거벗고 부끄러워 하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죄를 가려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21]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양은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1-5]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덧입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됴므로 죄악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영혼의  
새로운 처소로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몸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 전에 지나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양을 태우는 번제단과 그 앞에 손을 씻을 물두멍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제물되신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그 무서운  
십자가의 제단을 볼 때, 그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 마음의  
찢림을 받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끝났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있는 모습으로 나아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피하고, 그 전에 죄를 씻어 회개함으로 죽음을 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30:18-21]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도구였던 손과 발을 먼저 내밀어 회개할 그 때에 주님이 씻겨주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3-8]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가 그 분에게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흘리심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8-21]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지극히 성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이라는 큰 텐트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곳에서 그들로 예배하게 하셨고, 한 낮 사막의 타는 햇빛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살려 주셨고, 사막의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어죽지 않게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며, 그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기록한 구약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에는 왜 이런 텐트와 그에 대한 양식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에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15-23]

그 성막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곳에 놓인 증거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람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이 곳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출애굽기 30:6]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곳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막상 나오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6:2]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야 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 나가다가 도리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모순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열음이 뜨거운 빛 아래 나오면 스스로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인은 즉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휘장은 두께가 약 15센티 정도의 아주 두꺼운 것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할 만큼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26:33]

하나님 계신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성소와는 달리,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되었던 거룩한 지성소는 “너희를 위하여”, 즉 죄인을 위하여 휘장으로 막아놓으셨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1:23]

흠이 있다는 것은 죄인을 말합니다.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18-20]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임에도 우리 죄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는, 그래서 만나고는 싶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21-23]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가려주실 방패와 같은 반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곳에 숨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직접 덮어주신다 하십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4]

나를 덮어서 가려 주시는 그 손은 나의 죄를 위해 피흘리신 손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누가복음 24:39]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려주실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1-12]

그런데 그 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올라갔어야 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율법의 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우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주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34]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 분을 몰랐기에 말씀에 기록된 “그릇 살인했던 자”였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인도 같은 곳에서 나에게 쉽게 살인할 만한 힘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런 생각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머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설령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능력을 더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원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하십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6]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자신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숨으라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민수기 35:11-28]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즉 수천년 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제사장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여 죄를  
갚기까지 예수님 안에 숨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후에는 그 용서받은 살인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년 전부터 동일한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3-5]

예수님이 제물로서 드리신 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가려주고 보호해주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었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을  
원래 만날 수 있었던 그 자리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10-20]

그 휘장은 하나님 자신이 찢으신 것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37-39]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곳,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를 멀리서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던 그 곳을 들어가게 열어주시고, 그 귀한 못박힌 손으로 죽을 우리를 가려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성경 처음인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19-20]

그 분은 처음부터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으며, 그 축복은 그 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14:18-20]

그 살렘 왕, 즉 평강(살렘의 뜻)의 왕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1-3]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이전에는 공의의 벌로 죽지 아니하면 대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13-22]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계신 근처인 성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길 모습은 가질 수 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성소로 들어가 그 앞에 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문을 직접 열어 주시기 전에는.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하나님을 보여 주시는 예수님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은 신약 성경부터입니다. 그러나 수천년 시간을 가로질러 구약 성경의 지도자 모세가, 수천년 후에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과도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24-26]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자 자리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렘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 18:15-18]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불을 직접 맞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었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합당한 희생없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출애굽기 21:23-25]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이 옳다 하시고, 후에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찌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9-15]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형제”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신다 하셨고, 그 세우심을 받은 분은 우리를 또한 형제라 부르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는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19]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직접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심판의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불순종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에 합당한 벌까지 받으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복음이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6]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 즉, 성경 전체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11]

하나님의 지식을 이 세상에 주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7-40]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흔히 책을 통해 공부하는 간접적인 지식과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로 나누는 지식은 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안다고 착각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마치 의사 자신이 일반 사람들과 같은 (혹은 더 짧은) 수명을 살게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가 소유한 지식이 근본적으로 참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가진 의사는 그렇지 못한 자보다, 예를 들어 두 배는 더 오래 살게 된다면 그 지식이 그 의사에게 참된 지식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지식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회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소유하게 되는 명확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작용하여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사람들이 흔히 고치기를 포기하는 근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사람의 악한 본성이나,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관계의 굴레를 포함하여 많은 근본적으로 망가진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돕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죽음 이후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전인적인 치유를 맛본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23-25]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정말로 알게 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지 하는 의지의 노력보다는, 우리 마음에 믿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8-10]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구원의 지식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판에 직접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돌판에 쓴 것처럼 비바람에 부식되거나 세월이 오래가서, 혹은 치매같은 육체의 질병으로 지워질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3]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구원의 지식은 인생의 굽이 굽이 에서 성령님이 매 순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붙잡고 나그네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지나가야 장소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6]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19-21]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되며 그 분과 동행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마음에 새겨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테 하수 위에 흔들여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1-12 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처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한 방법으로 확증(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간청할 때가 많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미리 다 주셨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전에 평생 먹을 밥 값을 지불해주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식당에 방문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분이 지불한 비용은 밥값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값을 미리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6-10]

이미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은 그러므로 정당하며, 공의에 대한 벌을 자기 몸으로 받으셨으니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미리 십자가의 큰 사랑을 주신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공평하심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렇치 않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42-44]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못지켰던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우리는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 둘 만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공평하다 할 것이며, 우리를 손 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당연한 순종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못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와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맏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고치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있어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그 곳입니다. 이 구속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전에는 깨끗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와 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심이며, 모두 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이 세상 것이 아니므로 이 세상  
방법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지식이 되었고, 그 확실한 지식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1-3]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5]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둘째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종교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종교를 열심히 공부했으며 특히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알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 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고대 역사나 시대적 배경,

혹은 그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 심지어 성경 인물에 대한 분석이나 이동 경로등을 수 년간 공부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공부는, 영적인 지식이라기 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이며, 그 개인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개인의 지성이나 환경과는 상관없는,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아주 공평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게 된다는 것은 회개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없어지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1-13]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는 거듭남은 회개와 관련이 많고, 깊은 회개는 교만을 녹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그 크기를 말씀해줍니다. 그러나 물을 담아서 씻는 기구인 물두명은 그 수치나 만드는 방법 또는 몇 번을 씻을 건지 혹은 얼마나 오래 씻을 건지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어 피뿌리며 제물되는 양을 바라보는 번제단과, 말씀의 떡을 먹게 되고 일곱 촛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되는 성소에 들어 가기 전에 마주치는 그 물두명은, 다른 모든 기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지를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회개는 죄인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31-32]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따를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영은 지식으로 공부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책을 외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33-34]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나의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6-26]

그 거룩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듯, 동일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때, 우리 속에 계신 그 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6-7]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26-27]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증언되는 것이며,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이후 나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소망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3]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는 우리가 평생을 기다린다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성령님의 임재함을 간구할 때,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물었을 때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4:11-12]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유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회개를 통해 낮아진 마음만이 비유속에 담긴 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 진정한 뜻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마음은 비유속에 담긴 뜻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며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뜻을 몰라서라기 보다, 회개되지 못한 죄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가로 막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언제나 그랬듯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23-24]

오랜 세월동안 성경을 손으로 받아 적는 과정에서, 혹은 성경의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같은 다른 종류의 번역판 사이에서, 혹은 심지어 다른 언어를 거쳐 번역된다 하더라도, 비유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뜻과, 그 뜻을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회개한 겸손한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는 책에서 어떤 사실을 보고 외워서 시험보는 의미의 “안다” 혹은 수학 공식을 외우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의 앎과 깨달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박히심을 깨달아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 없고 세상에서 영향받는 나 자신의 모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그것이 참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좋은 지식이 나오면 비교당하여 없어지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요, 마귀의 어떤 속임수에도 변하지 않는 잘 박힌 못과도 같은 참된 믿음의 지식입니다. 이 믿음은 죄를 회개하여 내 힘으로는 의인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심령위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종교나 학문은 내가 노력하면 죄나 번뇌를 이기고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은 죄인인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고

애굽에서 대대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 해방됩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고기를 급히 먹고, 평생을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빠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사람을 위한 제물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로 인한 심판을 막아서는 것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 먹으며, 그동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비로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아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13]

예수님의 피를 집에 바른 후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가며, 지나간다는 것은 곧 죄로 인해 그 집의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의 공로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16:31-32]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의 어떤 때까지, 언제라도, 내가 노력만 하면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에 해당하는 벌이, 언제라도 인생의 계기를 통해  
임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4-5]

돌이켜 회개하여 급하게 예수님의 피를 나의 집 문설주에 바를 때에만, 곧  
임할 심판을 피하게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18-21]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돈이나, 물질같은 이 땅의 소산으로 대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밭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밭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그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21-51]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17-19]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심판을 교회(“내 성소”)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교회 안에 들어 오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늪은자”부터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떡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핍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3-6]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피는, 수천년 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통해 참된 의미로 이루어졌습니다.

1월 10일부터 14일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지내다 죽임당하여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 심판을 피하게 해준 구약 성경속의 유월절 어린양은, 삼십년 남짓 짧은 기간동안 우리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 죽임당하여 십자가에 피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를 때, 즉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라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됴이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스가랴 13:6]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킹제임스 성경에 “두 손에 있는 상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손의 못자국 상처는 우리를 친구라 생각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받은 것이며, 그 상처는 아이러니하게 그 상처를 낸 자들을 용서케 하는 피를 흘리게 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1-15]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 하신 것입니다. 그 분은 절대 우리 친구가 되실 분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낮아져 우리에게 오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26:11-13]

그 분은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에서 바로 서서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묵상해볼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 이 글을 읽는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그 피흘리신 은혜를 깊게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사야 42:1-10]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와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데로 돌아가지 말찌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공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시편 85편; 개역한글]

주님의 핏자국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나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내가 시작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회개

하나님의 회개의 기준은 우리가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깊고, 넓게, 또 모든 잘못을 찾아서 회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고치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0:18-20]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많은 인물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려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성결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시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대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다윗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야비하게 죽이고 살인했던 사람이었으며,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을 죽이고 또 스스로도 죽으며 살았고, 솔로몬은 수 많은 여인과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끌여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도리어 각 사람이 잠깐씩 행했던 착한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11]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행하셨던 많은 일들과 이루신 방법은 구약 성경 속의 각 사람들의 작은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예표라 부르며, 예수님은 죄인들의 찰나적인 착한 삶을 모아 크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드러질 때, 죄인들이 잠깐씩 행했던 착한 일들이 하나님께 함께 드러진 셈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큰 고난의 십자가임과 동시에, 많은 죄인들도 함께 못박히는 놀라운 반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반전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아주 작은 착한 일들조차,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42]

반면에 우리의 나쁜 죄악은 예수님이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박히게 되어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받아야 되었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

굳이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서,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 그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는 곳이며, 우리의 죄에 대한 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맞 바뀌지는 곳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33-34]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깊이에 대해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자는 철저한 회개에 대해 늘 빛진 마음이 있고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 지 걱정합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는 젓먹이 아기였을 때 엄마 젓꼭지를 물어 아프게 만든 것까지 회개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방법이나 정도가 또 다른 율법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은 기준으로 볼때 사람의 노력을 통한 회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절로 고민하게 되는 회개에 대한 마음이 있을때, 실제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속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러한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의 삶을 돌이킨 후 하나님께 겸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록한 규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14-16]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됩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너 스스로의 이해에 기대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면 주께서 마땅히 너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리라

[잠언 3:5-6; KJV 의역]

하나님은 회개의 조건으로 우리의 노력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만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스스로 꾸미고 모양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마음 그대로 나의 모든 조건과 복잡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애굽기 20:25]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1-8]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심령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1서 1:5-10]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졌을 때는 죄악의 근원이었던 숨겨진 영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나 대신 벌 받으신 예수님

우리는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마음보다 그로 인해 나타난 열매인 강도나 살인, 거짓말같은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9]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인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마음, 즉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죄도 안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가 믿는 길을 선택하게 되며, 회개하기 이전에 믿고 선택했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거나 헛갈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들도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적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선한 것들, 그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들 뒤에 숨어 있는 동기가 선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댓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선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되신 하나님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행하는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을 통한 나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쌓이다 보면, 인간의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과 사람의 선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도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70년대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월맹의 군인들은 수천년동안 불평등했던 세상을 바로 잡겠다는 공산주의 이념아래 전쟁터에 나왔고, 미국의 군인들은 인간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념아래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양 쪽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으로,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모두 아름답고 귀한 생각이며, 그들은 선한 것을 해야 한다고 믿고 목숨까지 바쳐 싸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이념들은 간 곳 없고, 도리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는 돈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과 이념을 믿고 목숨까지 걸고 싸웠지만, 지난후에는 원래의 의미는 찾기 어렵게 되고, 실제 남아 있는 결과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고통과 여러가지 죄악들이 다시 만들어 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12]

인간의 생각을 통해 일어난 수 많은 전쟁중에 죽어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22-24]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27-30]

예수님의 피와 회개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 그 마음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의 상자에는 율법의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돌판 위에는 매일 반복해야 하고 하루라도 또 한가지라도 빠뜨리고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전체 인생이 죄인이 되고 마는 무서운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선한 의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한번의 살인을 저지르면 그 인생 전체를 살인자로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수 없이 많은 지켜야 할 것들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타락한 언약한 육체로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둬나가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몸을 주시기 전까지는 무서운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 싶어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11-25]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노력 자체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죄악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만든 여러가지 종교의 수행자들은, 그들의 기준을 통해 많은 고생을 하며, 더러는 결혼도 하지 않고, 더러는 좋은 것을 먹지도 않고, 더러는 충분히 잠도 자지 않고, 여러가지 스스로 생각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 죄악이나 번뇌같은 것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노력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굳이 마다하고, 사람의 제한된 노력을 통해 평생 죄악과 번뇌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우리를 용서해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큰 잘못이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3-4]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의 댓가를 죄없는 예수님이 도리어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고, 그 대속(대신 속죄하신 것)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 년 전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주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며,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여 애써 외면하는 구약 성경 말씀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교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사이에서 동일한 경전이며, 열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자수까지 세어가며 보존해 온 책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4-11]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가 예수님이심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우리의 허물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 말이 많은  
우리들때문에 도리어 (죽임당하기 위해 끌려온 양과 같이) 아무 변명의  
말씀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으실 것을 정확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방법입니다. 스스로의 육체를 찢어 대신하실 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13-20]

계속되는 예레미야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때에는, 모든 인류를 얽어매고 있었던 율법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을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레미야 3:16-18]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아주 작은 것도 다 갚으신 예수님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5-9]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양, 즉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뱀은 죄악의 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뱀의 모양으로 나무 장대에 매달으시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생명을 주어 살려 주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장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을 뜻하며,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가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4-15]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불뱀과 같은 형상으로 매달은 것, 즉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동일한 육신의 죄를 짊어 지게 하신 것입니다.

수 많은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머리 대신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여져 피를 흘리셨고, 들키면 칠패음을 당해야 할 나의 얼굴 대신에 예수님의 얼굴에 칠패음을 당하셨고, 평생을 조금이라도 더 부귀를 쌓아놓고 누리려는 내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많은 악한 죄를 행한 나의 손과 발을 대신 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박히신 것이며, 낱알이 들켜서 정죄받아 부끄러움을 받아야 할 나 대신 도리어 예수님이 옷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발가 벗겨져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1-4]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크신 사랑을 주셨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모든 것을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반대로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그 댓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를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알기 전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17-30]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지키심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오르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순종하여 죄를 다 갚으신 것입니다.

완전하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 죄인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율법의 모든 요구는 바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는 늘 멀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평가표 같은 것을  
들고 우리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가까이 하기 두려운 하나님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임마누엘)이셨으며, 그를 믿는 자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13-14]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의 빛이 깊어지고 그 무서운 효력이 우리 죄인에게서 없어져 자유케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17-21]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큰 부자가 동냥하듯 몇 푼 던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양을  
도축하듯 (주님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과 그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악독한 죄악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악을 대신할  
제물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는 동물의 밥 그릇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6]

하나님의 등을 채찍질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뱀은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어떤 초인적인 힘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아픈 고통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찢겨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썰” 정도로 온 몸의 모든 부분이 고통당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별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갱으리이다

[시편 22:1-25]

위의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0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수백 혹은 수천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우리를 위해 피흘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핏자국이 아로 새겨진 책입니다.

단 하나도 용서치 않고 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한 모든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기에 정반대에 있는 두 가지 모두를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우상을 버린 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와 멀어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9]

혹 어떤 분들이 성경은 하나의 교훈이며 공부해서 내가 스스로 행하는 참고 서적이라 생각하신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구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생의 굽이굽이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매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중에는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도 포함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9-13]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거나,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지를 몰라 고민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죄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죄의 원천이자 그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흔적 혹은 죄악의 습관이라 비유할 마음의 우상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에 큰 방해가 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에스겔 14:3-5]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즉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이사야 65:1-3; 새번역]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 마음속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귀신과 같은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 같은 땅의  
소산일 수도 있고, 회개를 어렵게 만드는 숨겨진 자존심이나 음란함 같은

개인적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 살아오며 받게된 상처나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거짓으로 꾸며 놓은 심리적인 방어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자기만의 우상이 보이지 않는 주인이 되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결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결정을 자신이 품고 있는 우상인 돈, 명예, 자존심, 음란함, 상처에 대한 보상 혹은 점이나 주술같은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 사람이 가진 보이지 않는 우상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5:6-9]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그런 우상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우상을 통해 삶을 이끌었던 과거의 기준을 되새김질 하거나, 혹은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씩 회개해 나가며 모든 종류의 우상을 제하여 나갈 때, 더 큰 자유로움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사람에 따라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몸을 완전히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죄악에서 멀어진 만큼 영적인 힘이 비례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죄악은 영적인 모든 단계에서 적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 죄였고, 회개를 통해 털어버리려 애써야 하는 것도 죄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없애버리신 것도 죄였고, 거듭난 이후에도 조심하고 싸워야 하는 것도 죄였고, 또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실 것도 죄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가랴 13:1-2]

우상은 죄의 형상입니다. 바로 우상이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고, 또 반대로 죄가 두려움을 통해 우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씩 버리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버리며 회개할 때, 여러가지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라 할 수 있는 우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흘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깨닫고는, 나를 버린 친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나의 판단 기준의 근본적인 중심에 있었던 우상이었으며 그것을 버림으로 많은 은혜와 영적인 선물이 주어졌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죄와 우상, 사단은 동일한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고 거꾸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와 우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칭찬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37-47]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많은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놀랍게도  
그 여인이 죄로부터 사함을 얻은 것은 주님을 사랑함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처럼 (사람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교만도 죄로서 은혜를 가로 막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0-14]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17]

우상과, 죄와, 사단은 같은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1]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 선택한 심판

세상 사람들은 죄악중에서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며 세상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 놓고 의지한 헛된 언약들이며,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을 숭배하므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헛된 언약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망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잘못된 언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십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곳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어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8:16-29]

하나님이 “밭을 갈기만 하거나 고르게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즉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곡식들을 종류별로 심으시고 또한 그 곡식의 종류에 맞게 어떤 것은 떨어져 추수하고 어떤 것은 수레 바퀴나 말굽을 사용하여 연단하지만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같은 고난이나 개인의 상처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사랑을 통해 돌아오며,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18-20]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곡식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또한 종류대로 가려서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거둔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마치 매일 자라나는 곡식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지만, 또한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평생을 넘치도록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20-30]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이나 종말이 언제 올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3]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게 되는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세상의 고난을 몸소 받으셨으므로 심판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14-15]

하나님이 시온에 두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를 삼으신 그 돌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가득히 충만할 것입니다. 무너질 세상의 우상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려고 수천년 동안 쌓아올린 것들이며 하나님이 없는 마음속 허전함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만든 가짜 약속들입니다.

모양은 화려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진실의 순간이 되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들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यो 가슴과 두 팔은 은ियो 배와 넓적다리는  
놋ियो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 2:31-35]

그 우상은 금이나 은같은 재물과, 놋 그릇에 담길 음식과, 사람을 상하게 하는 쇠와 같은 무력과, 인간이 진흙으로 쌓아올린 건축물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참된 기초돌인 예수님을 통한 나라가 세상에 서게 될 때는 사람이 세우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심지어 스스로 복종까지 했던 우상들은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17-18]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세상의 기초돌은 예수님입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삼아 선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져 올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돌은 원래는 버려진 돌, 우리가 몰라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퉁이 돌이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흙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2-3]

우리가 멸시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5,8,9]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그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화려한 궁전 같은 것이 아니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힌 장막,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물들인  
“하나님의 어린양” 가죽으로 지어야 하며, 그 장막의 기구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찢어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대신 용서하고 속죄해주신 예수님 머리의 가지 나무 면류관, 즉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로 물들인 가죽으로 덮이고, 예수님 머리를 찢은 가시나무로 만든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22]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아름다운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책에서 계속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빛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26:11-13]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6]

사람의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 생긴 빛진자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빛진자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피흘리신 십자가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마음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선한 행위를 먼저 행함으로 구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며,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사상이나 종교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죄인된 속성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하며, 단 한번의 실수라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숨겨진 의도로 행해진 선한 행위는 진정한 선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8-14]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다시 오셔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6-18]

불속에 던져져 사형에 처하게 된 이들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다니엘 3:21-28; 새번역]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처럼 느브갓네살에게 보였습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2-3]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을 통해 흘러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몸된 거듭난 자들에게 흘러  
내리고, 그 곳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17-23]

아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우리에게  
영혼육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민수기 11:9]

하나님을 오래 동안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르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유월절을 우리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역대하 30:3-5]

어린양의 피로 이루어진 유월절은 처음에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여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이 없어 도리어 백성이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은 큰 역설이지만, 이것을 탓하거나 여기에 가로 막혀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맞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3-5]

유월절을 지켜야만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자라 부릅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렸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역대하 30:6-10]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예수님)이 주신 피를 받아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역대하 30:11-16]

유월절 양을 통해 하나님이 고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큰 기쁨이며  
“이러한 기쁨”은 이전에는 없던 천국의 기쁨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0:17-20]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성결치 못하더라도 유월절 양의 피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위에서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칠 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칠 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칠 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하 30:21-27]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고쳐 주신 그 날에는 큰 천국 잔치가 열리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분은 바로 외로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리셨던 그 분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던 분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4-17]

예수님과 흘리신 피의 구속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31-36]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예수님이 이끄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

이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맺음말

## 참된 성령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참된 성령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한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될 때, 성령님이 주실 다른 선물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성령님이 재촉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사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인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가득차게 되어 평안을 누리며, 병든 자에게 기도하여 병이 낫게 되며,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에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되며,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마음에 떠오르게 되어 과거와 같은 인생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성경에 기록된 여러가지 은혜의 선물들(사람을 살리는 방언이나 예언)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게 되며, 이외에도 셀 수없는 여러가지 각종 좋은 것들로, 나 자신이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귀한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게 됩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할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평안한 나의 마음, 평범한 가정, 서로 아끼고 진심으로 위해 주는 관계 등, 하나 하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 형상 닮은 귀한 사람들에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늘의 귀한 보배들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님으로 임하실 때 나머지 모든 귀한 선물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선물들을 쫓다가 그 모든 선물들을 주신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회복들을 맛보게 되며, 이런 것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진 자가 되며,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인 축복이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3:18-20]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친히 오십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3-5, 9-10]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나마 보고자 하여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십니다.

모든 좋은 영적인 일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내 심령이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성령님이 내 마음에 확실히 그리스도를 인쳐주셔야 하며, 그 인치심이 참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이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전했습니다. 그 방법은 지난 십수년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으로, 부족한 제가 감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13-32]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시고는, 친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전해드리려고 한, 예수님의 핏자국이요,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핏자국을 따라갈 때,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처음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더해,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며 성령 체험을 통해 “마음으로”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진정 예수님 믿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을 참된 복음 전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8-10]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 가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려는 자부터 먼저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이름없는 전도자

이 책에서 저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출판 과정에서 법적인 저작권은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피흘리신 십자가 구원에 감히 나의 권리 (copyright)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며, 자격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마음대로 복사하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으며, 그렇게 되어 예수님이 더 넓게 퍼져 나갈 수 있다면 포도주를 퍼나른 중에 불과한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사람이 만든 교단이나 혹은 어떠한 형태의 장벽에도 가로 막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책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편집하여 사용하셔도 좋지만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과 설명은 꼭 그대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book@AOJesus.org)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위의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웹사이트 AOJesus.org 에서 신청하시면 저의 사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십자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던 많은 분들과 그 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들이 봉투에 담아주었던 작은 헌금들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 드렸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그 분들을 세어 보았지만, 나의 세는 손가락 끝에서, 정작 잃어버린 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서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무너졌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평생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LA 주님의 영광 교회의 신승훈 목사님,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 원보이스 선교회의 유기은 목사님, 프리몬 지역에서 예수님 전하기를 힘쓰시는 뉴라이프 교회의 위성교 목사님,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대일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제네바 영성 교회의 황영근 목사님,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최근에 은퇴하신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 교회의 손원배 목사님께 여러가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심과 또한 이 책을 읽고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말없이 나를 수십년간 도와주고 있는 집사람과 이제는 커서 영어로도 책을 번역해주고 응원해주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 고장나 버려진 세탁기와도 같았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씩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고, 고칠수 없는 것은 갈아 끼워 주시고, 뿌옇게 흐려진 것은 닦아주시고, 어떨 땐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



해주시며 지금까지 못난 저와 동행해주신, 날 위해 피흘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름없는 전도자 올림

